

## 북한의 민족주의

백응진

토론토대학교 교수

**북**한에서는 ‘민족주의’란 말 자체에 대해서 심한 혐오감을 나타내지만, ‘민족’이란 말은 ‘자주’와 더불어 남한에서보다 더 많이 애용된다. 물론, 이런 단어들을 쓸 때에 그 함축하는 뜻이 남한과는 다르다. ‘자주’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말인가 하면, ‘민족’은 조선 민족의 역사에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동시에 ‘민족의 태양’인 수령을 전제로 하여 쓰는 말이다.

‘민족’과 관련된 민족어, 민족의 자주 노선, 민족의 사회생명체론 등은 북한식 민족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을 살펴보자.

북한에서는 한국어를 ‘민족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 민족어와 관련하여 조선 민족과 민족어는 신석기시대에 한반도 주변에서 이미 확고히 형성되었고, 한국어가 알타이어와 친족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학계의 정설인 알타이어 계통설을 부인한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인한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남쪽 백제와의 통합으로만 보고, 통일신라시대를 북의 발해와 남의 신라로 이루어진 남북조시대라고 보고, 통일 신라를 후기 신라라고

부른다. 게다가 고려는 고구려의 유민이 세운 발해를 계승하여,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 민족어는 고조선어, 삼국시대 삼국의 언어, 발해어 - 후기신라어, 고려어에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언어 통일도 통일신라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의 수도 개성의 말이 신라의 방언을 이은 것인지, 고구려의 말을 이은 것인지가 문제인데, 남한의 국어 학자들은 개성의 말이 신라의 방언이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 학자들은 고구려말이 개성말의 주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고구려말이 고려어와 이조 서울말에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쓰는 한국말의 근간이 신라의 말이 아니라 고구려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의 흐름을 이어 받은 북한 역사에서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평양 근처에 있는 한 고구려 무덤에 대한 동명왕릉의 이장설과 최근의 단군릉설도 북한의 한국 역사에서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주체사상이라 하면 그 기능적인 면만을 확대·해석하여 거의 이구동성으로 김일성이 정적을 숙청하며 독재 권력을 공고화하고, 김정일에게 권력을 승계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않다고 본다. 주체사상이 50년대 이래 북한 숭사회의 지도 이념으로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주체 사관, 주체 언어 이론, 주체 예술, 주체 공업, 주체 농업, 주체 의학, 주체 건축 등 각 분야에서 주체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전부가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와 권력 승계 목적에 이용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김일성 자신이 ‘민족주의’를 누누이 부인하긴 했어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1958년 12월에 김일성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는 말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체’라는 말은 민족 주체 즉, 민족주의 사상에 뿌리박고 있었고,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할 때부터 민족주의자였고, 한반도에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죽을 때까지 그의 꿈이었다. 초기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인 면은 반사대주의, 반수정주의, 반교조주의와 더불어 김일성의 민족 자주 노선에서 분명히 보여진다. 물론, 김일성의 민족주의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구호 뒤에 은폐되어 있었다. 남의 도움을 최소로 받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60년대의 주체사상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성공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북한은 8·15 광복 후 구소련의 위성국 위치에서, 60년대에는 구소련이나 중국의 내정 간섭을 받지 않는 비교적 자주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1972년에 와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개념을 전과 좀 다르게 풀이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9월 17일에 일본 마이니찌(讀賣)新聞의 언론인들이 제기한 응답에서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본질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이런 김일성의 풀이가 1981년과 1991년의 「현대조선말사전」에 쓰여 있다. 동시에 김일성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였지만 자기가 주체사상을 창조해내지 않았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는 강조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 외국 기자가 주체사상이 철학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과찬의 말이라고 대답한 일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4·14 노작’이라고 불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내놓은 1974년 4월을 시점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괴물로 둔갑하였다. 이 ‘10대 원칙’에 숭사회의 주체사상화, 대를 이어 혁명을 완성하자는 권력 승계, 대중과 수령의 결합인 사회정치적 생명체, 무엇보다도 김일성 신격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

성, 유일사상의 신앙화 등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 1974년 이전의 주체사상이 민족 자주 노선의 근간인 민족주의 사상이었다면, 1974년 이후의 주체사상은 민족의 태양인 수령을 신성화하기 위한 사회생명체론에 근거한 괴이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수령-당-인민 대중의 삼위 일체를 지칭하는데, 그 수뇌는 수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 불패' 제창도 민족을 단위로 한 사회생명체론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바로 이 1974년 4월에 김정일이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란 답화에서 '주체철학'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김일성방송대학 강의록인 주체사상 「철학강좌」가 나오기도 하고, 김정일 개인 숭배와 김정숙 우상화도 시작되었다. 또한 김정일이 수령 후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김정일의 주요 업적으로는 1982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을 체계화했다는 말을 하는데,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어록을 분류·배열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모순 덩어리의 '주체철학'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주체사상의 기원은 김일성이 만주에서의 빨치산 활동을 하던 30년대라고 하는 허황된 얘기에다, 사회 역사의 주체인 인민 대중이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수령관의 단서뿐이다. 그리고 1986년에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혁명적 수령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1974년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이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사회생명체는 민족을 단위로 한 것인데, 이 생명체의 수뇌가 수령이다. 이 사회생명체론이란 '민족의 태양'이란 표현에서 보이는 것처럼 민족의 수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이론이다. 그런데 흥미있는 일은 사회생명체론 즉, 수령 신성화에 이용된 개념들이 기독교의 본질적 개념을 차용해왔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주체사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어떤 학자들은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레닌, 스탈린, 毛澤東의 표현을 이리저리 엮어 놓은 복사본이거나, 종합 체계화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구소련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에서 '절대 독재 권력'과 毛澤東의 군중 노선에서 '인민 중심' 등의 개념을 빌려왔다고 본다.

그런가 하면, 흔히들 주체사상은 봉건 유교 사상과 문화 특히, 유교적 권위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견해라고 본다. '아버이 수령'이라고 할 때

가부장적인 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전통 유교적,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개념만으로는 북한 사회에서 전지전능한 유일신으로 우상화된 '수령'이란 개념을 도저히 해명할 수 없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민족의 태양' 숭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생명체론의 근간이 되어 있는 현재의 주체사상은 유교 사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북한의 '민족의 수령 신성화론'은 유사 종교론 또는 사이비 神論의 영역이다.

필자가 그동안 분석해온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민족의 태양 숭배론'은 기독교의 여러 개념을 차용하여 꾸며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혁명적 수령관은 기독교의 삼위 일체, 창조, 생명의 근원인 신, 섭리, 교회의 머리, 전지전능한 신, 낙원, 십계명, 구원론 등의 개념을 차용하여 꾸민 것이다.

- 삼위 일체: 기독교의 성부와 성자, 성신인 삼위 일체의 개념은 주체사상에서 수령, 당, 인민 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받아들여졌다.
- 창조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주체사상에서는 인민 대중이 역사의 창조자라고 하나,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므로 결국 수령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 생명의 근원: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육체적

생명보다 귀한 사회 정치 생명을 수령이 안겨준다. 수령이 생명의 근원이다.

- 섭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의 섭리로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 교회의 머리: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수뇌이다.
- 전지전능: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이다. 주체사상의 수령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하다.
- 구원론: 놀리고 천대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은 주체사상의 구속과 억압에서의 해방론에 대응한다.
- 십계명: 기독교의 십계명은 주체사상에서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해석되었다고 본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유일신과 이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과 충성 같은 십계명의 핵심 개념이 '10대 원칙'에 나열되어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은 지 약 4 개월 지난 1994년 11월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새로 내놓은 개념이 '믿음' 과 '사랑' 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믿음' 과 '사랑' 의 인덕 정치를 베푼다는 것이

다. 여기에서의 믿음과 사랑 역시 기독교에서 차용한 말들인데, 요즘 「로동신문」에서 믿음과 사랑의 정치란 표현을 볼 수 없으니, 별로 신통치는 않은 것 같다.

물론, 민족의 자주적인 정체성이라는 주체사상의 본질은 북한 사회와 학문의 각 분야·영역에 침투되어 있었음은 틀림없지만, 1974년 이후의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합리화하려는 방향으로 치우쳐 민족의 태양인 수령을 우상화하는 데 김정일과 북한의 주체사상 이론가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으므로, '민족의 수령 신격화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일이 1989년과 1991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란 연설과 "인민 대중 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란 서한을 썼는데,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고 조선 민족이 제일이라는 궤변을 털어 놓았다.

이러한 수령 우상화 또는 사이비 神論이 김일성 생존시에는 사회의 지도 이념으로 기능을 발휘하였다고 본다. 김일성이 죽고 없는 현재의 북한 사회는 김일성의 혼이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김일성의 혼을 숭배하는 북한의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생존시에 6·25 전쟁과 기타 저지른 온갖 범죄에 대하여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카리스마적

영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정일은 민족 자주 노선의 근간이었던 주체사상을 해괴 망측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합리화론으로 꾸민 것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김일성이 누렸던 카리스마도 없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김일성이 차지했던 수령의 자리에 올라 앉기에는 너무도 미미한 존재다.

주체사상이 변해온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1974년 이전은 김일성의 민족 자주적 정체성이 핵심 개념이었으나, 1974년 이후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부자가 공존하는 사회와 체제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꾸민 민족의 태양 수령 우상화가 본질적 개념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북한 사회는 죽은 김일성의 혼이 북한 주민의 마음에 남아 있을지 모르나, 민족의 태양인 수령은 없는 사회이다. 아무도 감히 김정일을 수령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죽은 수령은 있어도, 살아있는 수령은 없는 것이 현 북한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생명체론은 뇌수가 없는 생명체니 이미 죽은 생명체로 볼 수밖에 없다. 죽은 김일성의 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앙심이 시간이 갈수록 흐려질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민족의 수령 우상화의 핵심 개념인 궤변 덩어리 사회정치생명체론이나 혁명적 수령관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북한 사회는 몰려 있다.

평양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인 박승덕 교수는 1994년 5월에 「주체사상에서 본

통일』이란 논문에서 한 민족 안에 여러 민족이 존재해도 공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뒤에는 민족의 태양 수령 우상화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이 없는 현 시점에서 수령 우상화론은 공론에 불과하다. 아무리 김정일을 김일성처럼 우상화하려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馬耳東風격이 될 것을 북한 지도부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국방위원장과 인민군총사령관의 직책을 갖고 ‘장군’이나 ‘명도자’라 불리며 표면적으로는 김일성이 누렸던 권력의 일부를 승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전지전능하고 신격화된 수령의 지위에 올라, 북한 주민의 우상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북한 체제와 지도 이념은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 지도 이념의 변질과 관련하여, 북한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인 박승덕 교수가 이번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기독교학자회의에 ‘민족연구회 회장’이란 직책을 달고 참석한 것이 흥미있는 일이다. 박승덕 교수는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으로서 기독교 연구에 전념하여 1974년 이후 주체사상을 사이버 신학으로 만들며, 김정일이 주도한 주체사상의 ‘체제화’에 한 몫을 맡아왔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2년 전에는 없었던 평양 ‘민족연구회’의 회장이라니, 이는 주체사상연구소의 연구 초점이 신학에서 민족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94년 5월에 토론토에서 그의 독특한 민족 이념이란 것을 발

표하였는데, 한 민족 안에 다양한 여러 계급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案이 최선의 통일 방책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번 북미기독교학자회의에서도 2년 전과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마디로 핏줄이 같은 한민족이니 통일하자는 것이다.

공론에 불과한 사회생명체론은 폐기될 수밖에 없고, 사회생명체론이 버려진 후의 주체사상이란 민족의 자주적인 정체성이 본질적인 개념이다. 민족의 자주적인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남북한은 대화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번에 남포에 남북한이 처음으로 같이 세운 합자 회사 이름이 ‘민족산업총회사’라니, 지금부터라도 한민족이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설립한 텔레비전 수상기도 인천에 이미 들어왔으니 이 역시 앞으로의 남북한 관계 개선에 좋은 징조를 보여준다고 본다. 첫단계로 경제 협력을 활발히 모색하는 바탕 위에, 다음으로 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방문, 화해 협력을 통하여 최종 단계로 정치적 해결이 올 것이다. 아직도 요원하고 막연해 보이나, 민족의 숙원인 통일 위업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